Eugene's FICC Update

유진투자증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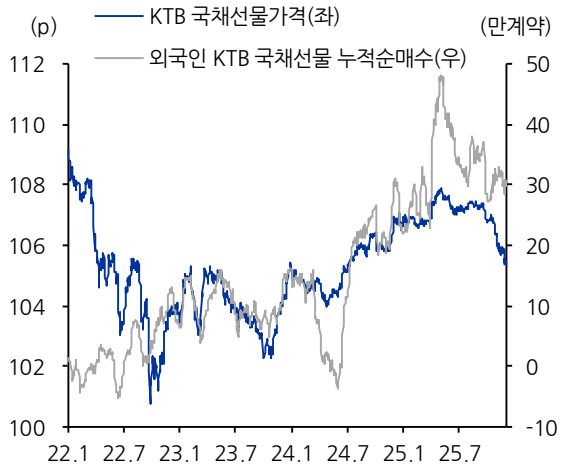
Fixed Income 김지나_ 02)368-6149_ jnkim0526@eugenefn.com Economist 이정훈_ 02)368-6138_ jhoonlee@eugenefn.com

Fixed Income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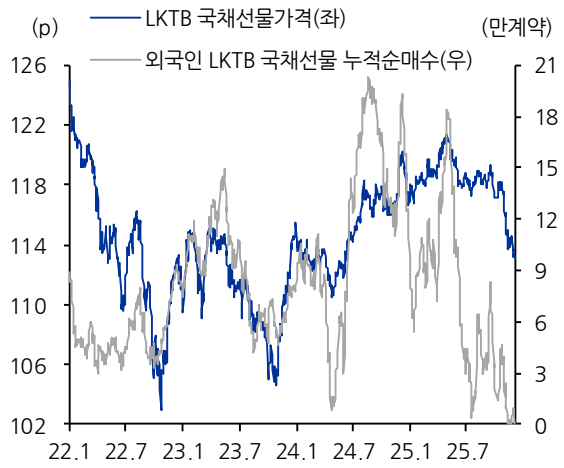
(단위: %,bp, 틱)

		12/3일	1D	1W	YTD
국내 채권	한국 국고채 3년물	3.041%	1.9	14.6	44.5
	한국 국고채 10년물	3.368%	2.2	11.7	51.3
	장단기금리차(10년-3년,bp)	32.7	32.4	35.6	25.9
	3년 국채 선물(KTB)	105.39	-9.0	-47.0	-126.0
	10년 국채선물(LKTB)	113.08	-34.0	-149.0	-384.0
해외 채권	미국채 2년물	3.486%	-2.4	2.6	-75.4
	미국채 10년물	4.064%	-2.3	6.7	-50.8
	장단기금리차(10년-2년,bp)	57.9	57.7	53.8	33.3
	독일국채 10년물	2.746%	-0.2	7.5	38.3
	호주국채 10년물	4.646%	3.6	11.5	27.8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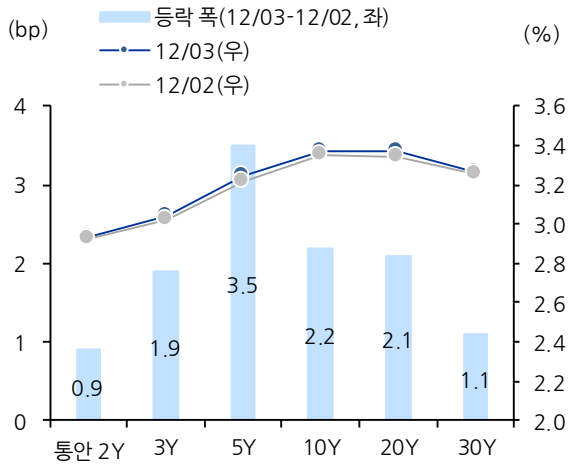
외국인 3년 국채선물(KTB) 수급



외국인 10년 국채선물(LKTB) 수급



일간 금리 등락 폭 & 커브



국내 채권시장 동향

- 국내 채권시장 약세 마감. GDP 상향 및 물가 우려 영향.
- 전일 연준 차기 의장에 케빈 해싯 NEC 위원장이 유력하다는 보도에 국내 금리도 하락 출발했지만 이내 상승 전환. 3분기 GDP 확정치가 전분기 대비 1.33% 증가하면서 속보치보다 상향 조정된 영향.
-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고환율의 물가 영향 언급과 함께 높은 체감물가에 대처할 의지를 밝히며 금리 상승폭 확대. 외국인 국채선물 순매도 확대도 영향. 일본, 호주 등 아시아 주요국 금리 상승도 영향.

전망 및 향후 주요 이벤트

- 미국 채권시장 강세 마감. 12월 인하 가능성 높게 반영.
- 11월 ADP 민간고용이 전월대비 3.2만명 감소한 것으로 발표. 예상치 +1만명, 전월치 +4.7만명에 비해 큰 폭으로 둔화된 수치로서 12월 FOMC 인하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 됐음.
- ISM 서비스업 지수가 전월대비 상승하며 양호한 흐름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12월 FOMC 결정에 대한 관심이 쏠린 탓에 고용지표 영향이 더 컸음.

자료 출처: 연합인포맥스, Refinitiv, 유진투자증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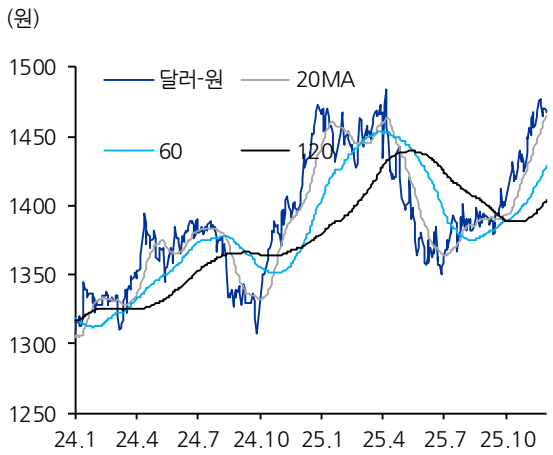
본 자료는 참고용 자료일 뿐이고, 특정주식에 대한 투자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닙니다. 본 자료는 담당자가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하는 자료나 정보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지만,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. 따라서 본 자료를 참고한 고객의 투자의사 결정은 고객 자신의 판단과 책임아래 이루어져야 하고,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존하여 행하여진 일체의 투자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을 것임을 밝힙니다. 아울러 본 자료는 당사 고객에게만 제공되는 자료로서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/전송/인용/배포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

FX & Commodity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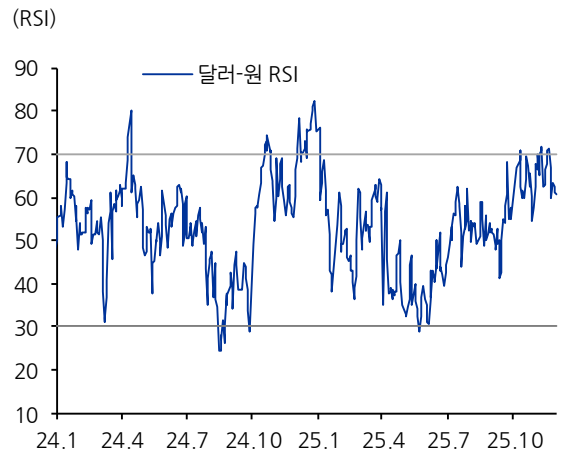
(단위: %, $)

		12/3일	1D	1W	YTD
환율	원/달러	1,468.00	0.0%	0.2%	-0.3%
	달러지수	98.91	-0.4%	-0.7%	-8.8%
	달러/유로	1.167	0.3%	0.6%	12.7%
	위안/달러(역외)	7.06	-0.1%	-0.1%	-3.8%
	엔/달러	155.24	-0.4%	-0.8%	-1.2%
	달러/파운드	1.335	1.0%	0.8%	6.7%
	헤알/달러	5.31	-0.3%	-0.5%	-14.1%
상품	WTI 근월물($)	59.11	0.8%	2.0%	-17.6%
	금 현물($)	4,206.36	-0.1%	1.0%	60.3%
	비트코인($)	94,140.00	2.9%	7.7%	0.0%

달러-원 환율 및 이동평균선



달러-원 환율 상대강도지수



달러-원 환율 및 달러인덱스 동향

원달러 환율 동향

- 달러-원은 서울 외환시장에서 -0.40원 하락한 1,468.00원에 마감. 야간거래에서는 1,466.90원 마감.
- 약보합 출발한 달러-원은 장 초반 하락권에서 등락하다 오전 막판 상승폭을 급격하게 키우기 시작. 한 때 1,471원 선까지 올라섰으나 고점 인식에 이후 보합권으로 밀렸음.
- 미국 차기 연준 의장 인선에 달러는 약세를 보였고 외국인들도 국내 주식을 사흘 째 매수했지만, 저점 결제수요 등이 유입되면서 좀처럼 방향을 틀지 못하는 중.

달러 지수 동향 및 관전 포인트

- 달러 인덱스는 연준 의장 인선 우려와 고용 둔화 속 10월 말 이후 최저치로 하락.
- 시장에서는 케빈 해싯이 차기 연준 의장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굳히면서 달러는 약세 압력 지속. 다만 언론에 따르면 월가 주요 은행 임원들이 해싯에 대한 우려를 표하면서 재무부와 면담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짐.
- 11월 ADP 민간 고용은 -3.1만 명 감소하면서 올해 들어 가장 큰 낙폭을 기록. 주로 중소기업들에서 고용 약화가 두드러졌음. 시장은 12월 인하 확률을 기정사실화. 반면 ISM 서비스업지수는 52.6으로 2개월 연속 상승. 투입가격 지수는 4월 이후 최저치로 하락했고 고용지수는 3개월 연속 반등.
- 금일 미국 챌린저 감원 계획 발표 예정.